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3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33호)

e-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 (제33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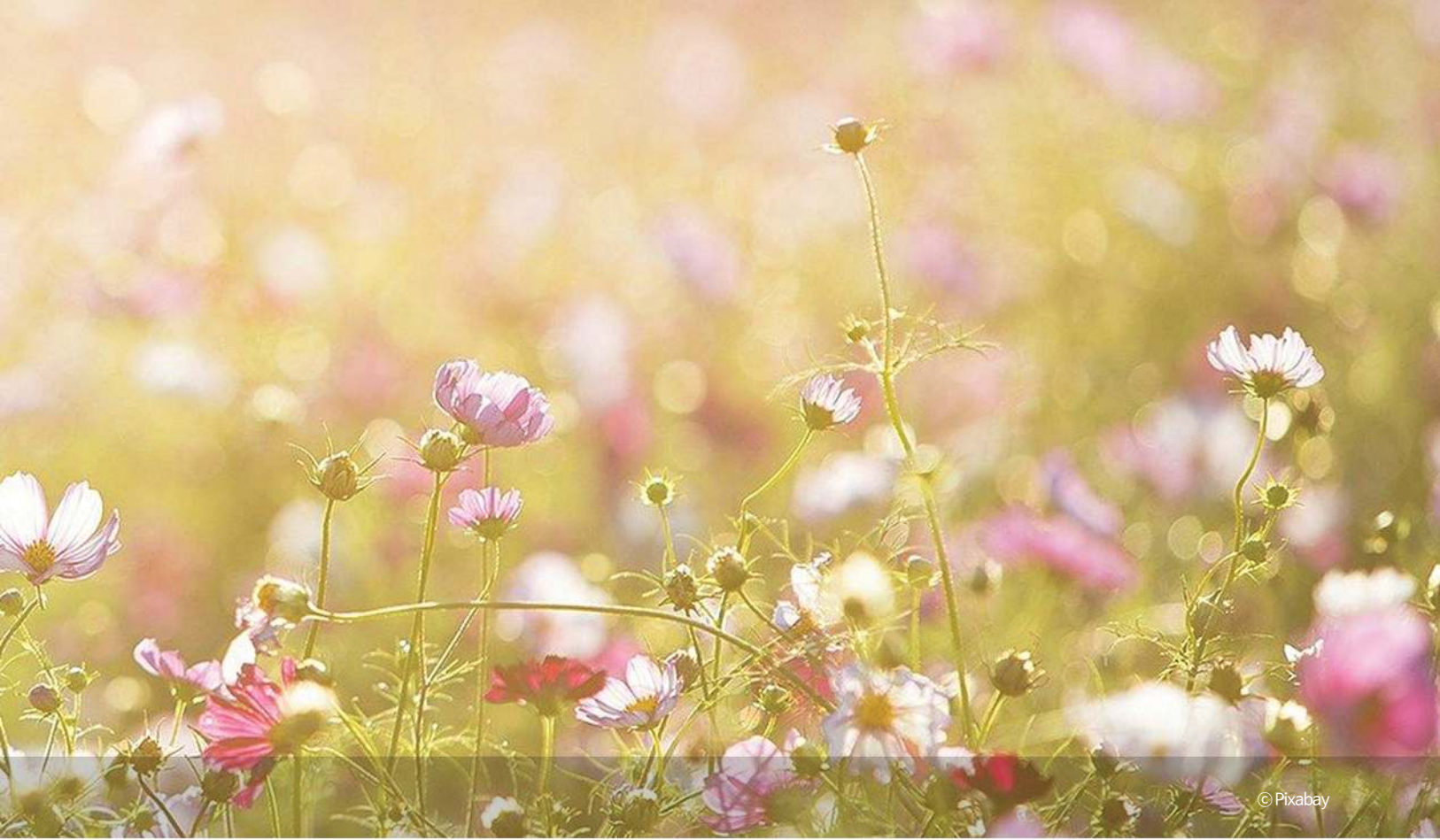
기상청장 기고

- 05 / 비나 눈이 내릴 때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까?
- 07 / 생명을 지키는 기술, 지진조기경보
- 09 / 기상정보 확인으로 안전한 가을 산행 떠나기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1 /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2 /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7 / 2023년도 가을 계절관측
- 38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41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2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이지훈(예보과), 허자윤(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수정(예보과), 박형진(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신아영(관측과)

심준수(관측과), 이성은(기후서비스과), 이나정(예보과), 이상진(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이혜정(기획운영과), 허자윤(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비나 눈이 내릴 때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관측을 통해 기록,
수치모델 활용하여 미래
기상예측 자료 생산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영국의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 남긴 말로 과거는 미래와 분리되지 않으며, 과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이 말은, 자연 현상인 날씨에도 적용된다. 기온, 습도, 바람, 기압, 강수 등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우리는 '관측'을 통해 기록하며,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미래의 기상예측 자료를 생산한다.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도 기상기후 데이터라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하늘, 땅, 바다, 우주 등 대기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기상기후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는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고 위험 기상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에 가치를 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기상융합서비스가 있다. 지역기상융합서비스는 기상기후정보를 농업, 환경,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고 분석하여 지역 사회의 현안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과수의 생육 시기별로 영향을 주는 서리, 냉해, 일조 등의 기상재해가 예상될 경우,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CCTV영상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바다 안개의 발생 유무와 가시거리를 분석하고 위험 기상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관광 분야는 어떨까.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 관광, 축제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관광산업이 침체를 겪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20년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1%, 관광소비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관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하고자 관광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일기예보를 꼭 확인한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는 날씨는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 관광기상 융합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이 서비스는 관광 정보와 기상 예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각각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날씨와 관광 유형에 따라 나에게 맞는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충남관광 누리집에서 제공 중이며, 여행 날짜와 테마, 교통편, 누구와 가는지를 선택하면 일기예보를 고려하여 충남의 100여 개 관광지 중에서 나에게 맞는 관광지를 추천해 준다.

관광기상 융합서비스는 관광 빅데이터와 기상기후데이터를 분석·매칭하여 관광지별 강수, 바람 등 계절별 기상현상과 관광객 수의 상관성을 도출하고,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기상기후정보에 따른 관광지를 추천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관광지의 빅데이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해시태그를 통해 계절과 기상 요소, 최신 관광 경향에 맞는 관광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관광기상 융합 서비스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안전한 여행을 제공하며, 지자체와 지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지자체는 수요기관으로서 관광기상 융합서비스를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민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나만의 맞춤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관광기상 융합서비스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으로 유난히 자연재해가 잦았던 여름을 뒤로하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볼 시기가 됐다.

여행을 통해 그동안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하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그리고 여행 계획을 짤 때 나만의 맞춤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관광기상 융합서비스와 함께 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장 기고문 생명을 지키는 기술, 지진조기경보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 급변

자연재난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고대부터 자연재난에 대한 공포는 인류에 각인되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사고와 같은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제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에, 우리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유효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고 있다. 태풍, 호우와 같은 풍수해의 경우 주기적으로 피해를 겪으며 경험치가 쌓여 왔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하기에, 대비가 부족하여 큰 피해를 겪게 되면 우리는 이를 인재(人災)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진은 피해가 발생하는 강진이 극히 드물고 예측도 불가능하여, 우리의 대비 수준이 충분한지 가능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6년 경주에서의 지진을 기점으로 지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계기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을 기록했으며, 진앙지인 경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울산과 경북지역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수도권에서도 유감신호가 빗발칠 만큼 위력이 강했던 이 지진으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고조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지진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시설물 등 각종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과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점검·강화하였고, 지진 대응 매뉴얼 및 행동 요령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였다. 기상청은 당시 국민안전처로부터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CBS)발송 업무를 이관받아 지진 발생 시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파 중 P파가 S파에 비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이용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먼저 도달하는 P파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다. 지진은 발생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발생했음을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무방비 상태로 지진피해에 노출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지진파 도달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주어져도 머리를 가리거나 책상 밑으로 피신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망자와 중상자를 80%나 줄일 수 있다.

올해 초 튀르키예를 강타한 지진은 현지 시각 2월 6일 새벽 4시 17분에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만 5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

지난달 모로코에서도 현지 시각 9월 8일 밤 11시 11분에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거나 잠이 든 후 벌어진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은 한겨울에 발생하여 이주민들과 복구 인력은 매서운 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이렇듯 예고 없는 재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뜨린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지진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은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지진조기경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단 1초라도 더 빨리 지진을 탐지하기 위해 지진관측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그 결과 경주지진 발생 당시 지진파 최초 감지 후 26초 만에 발표되었던 지진조기경보는 현재 최초 관측 후 5~10초 후에 발표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기상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진조기경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인천 강화 해역지진 발생 시 관측 후 9초, 5월 동해 해역지진 발생 시 6초만에 지진조기경보를 발표했다. 빠른 탐지와 정확한 분석, 신속한 통보 3박자의 화합이 잘 이루어진 결과이다.

지진이 언제 다시 한반도를 위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움직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기상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인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기상정보 확인으로 안전한 가을 산행 떠나기

가을은 사계절 중 가장 짧은 계절이 됐다

‘가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물들이며 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모두가 닳아갑니다.’ 이정하 시인의 ‘가을’ 시구처럼 모든 것을 물들이며 가을이 깊었다. 보통 가을은 9~11월을 말하지만 절기로는 입추(8월 7일경)부터 입동(11월 7일경)까지이며, 천문학적으로는 추분(9월 23일경)부터 동지(12월 21일경)까지를 가을로 본다.

기상청은 일평균기온을 이용한 자연계절 구분 기준에 따라 과거와 미래의 계절 시작일과 길이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하는데, 가을 시작일은 일평균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로 본다.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21.4.)’에 따르면 최근 30년간(‘91~’20) 가을 시작일은 9월 26일로 천문학적 가을과 유사한데, 이는 과거 30년(‘12~’40) 대비 9일 늦어진 것이다. 또한, 계절 길이는 69일로 가을은 사계절 중 가장 짧은 계절이 됐다.

가을에는 하늘이 유독 맑고 푸르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 가을하늘이 맑은 이유는 대기의 대류가 여름보다 약해, 먼지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쉽게 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다. 또한, 가을에는 대기가 건조하여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더 잘 산란하여 유독 파랗고 청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가을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그 모양이 여름 구름과는 다소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여름에는 수직 방향으로 대류가 발달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뭉게구름인 적운과 썬비구름이라 하는 적란운이 많이 나타난다. 반면 가을에는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권운, 일명 새털구름과 양떼구름인 고적운이 자주 눈에 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가을철에는 산행을 떠나는 나들이객이 많다. 그런데 가을철 특유의 기상 몇 가지가 있어, 산에 오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가을 산은 일교차가 5.5~12.6℃ 정도로 심하고, 일조 시간이 짧으며, 늦가을에는 한파가 찾아온다. 산악의 지세에 따라 일교차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낮은 지대에 있는 계곡은 특히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야영 시에는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10월 중 내륙 산간 지방의 일교차는 대관령이 약 30℃, 속초는 약 29℃로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미처 추위에 익숙해지기 전에 추위가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한층 더 춥다고 느끼게 되며,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지므로 겨울 장비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는데, 특히 산이 높고 계곡에 가까울수록 해가 산에 가려져 빨리 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찍 산행을 시작해서 빨리 마쳐야 한다. 일몰 후에는 냉각된 바람이 산꼭대기에서 계곡을 향해 불어 체감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는데, 바람에 의한 체열 상실은 신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온이 0°C일 때 초속 5m로 바람이 분다면 체감온도는 -4.9°C이며, 초속 10m일 때는 -7°C, 15m일 때는 -8.4°C가 된다. 같은 기온 이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 온도는 점점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또한, 늦가을 저기압은 비를 몰고 와서 기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을철에 눈이나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 즉시 대피하거나 하산해야 한다.

가을 산에서는 한낮에는 덥지 않게 얇은 여름옷을, 밤에는 보온이 되는 겨울옷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방풍복과 보온이 되는 여벌의 옷은 가을 산행의 필수 준비물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상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 누리집을 통해 전국 주요 산의 오늘, 내일, 모레 날씨를 제공하고 있으니, 산에 오르기 전에 산악날씨를 확인한다면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산행, 기상정보 확인과 철저한 대비로 올가을 안전하게 여행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3.9.7.

대전지방기상청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폭력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성평등연구소의 허선미 소장이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의 중요성, 사무실 일상 속 주의사항과 사건 시 대처방법 등에 강의하였다.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라는 강의명처럼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직장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9.16. ~ 9.17.

2023 가을 사이언스데이 기후과학 체험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과학문화 축제 '2023 가을 사이언스데이'에 참여하여 기후과학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알리는 기상전문기자 및 기상 캐스터 체험 및 지구를 지키는 실천 행동 다짐 배지 만들기 등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제공하였다.

2023.9.16. ~ 9.17.

위험기상 대비 기상관측차량 고층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특별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17일 동안 강수로 인한 위험기상이 예상됨에 따라 서천 장항항에서 6시간 간격으로 레인존데를 비양하여 특별고층관측을 실시하였다. 특별관측자료는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예보관의 기상정보 생산에 활용되며, 추후 수치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2023.9.18.

대전·세종·충남 기상관측표준화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9월 18일 충남권 관측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표준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상관측표준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상관측표준화업무 종사자 18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상관측 표준화업무 소개,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기상측기형식승인 및 관측시설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담당자들은 관측장비와 관측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측자료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3.9.18.

지자체 재난안전담당자 대상 기상정보 이해 강화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기상 대응 강화를 위하여 충청도청과 협업으로 지역 지자체 재난안전담당자의 기상정보 이해 강화 교육을 실시 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가입 방법 및 부가 서비스 활용법, 날씨알리미 앱, 기상청 홈페이지 활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 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지자체 방재업무담당자의 교육을 통해 기상정보 이해 능력과 시스템 활용도를 강화하여 위험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2023.9.18.~10.19.

하반기 대전지방기상청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 현장답사

대전지방기상청은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의 일원으로 2023년도 하반기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답사는 5개 팀, 총 28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충청남도의 예보·관측지점, 위험기상 발생지역 등을 현장답사 하여 예보구역의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예보기술 및 위험기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원효봉AWS에서 바라본 전경)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일시 | 2023. 9. 21.(목) 15:00 장소 |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충남 홍성군 홍북읍 침단산단로 15) 대전지방기상청



2023.9.2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9월 21일(목) 오후 3시,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의 첫출발을 알리는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에는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일수 충남도 부교육감 등 센터 건립 주요 인사들과 관계 기관 직원 및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기상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 개관된 기상과학관으로 지역민 가까이에서 기상과학에 대한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9.22. ~ 9.23.

「2023년 제7회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기상기후사진 전시회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개최한 「2023년 제7회 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과 연계하여 기상기후사진 전시회를 이틀간 운영하였다.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 20점을 전시하여 기후 변화와 기상 재해를 비롯한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행동 실천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2023.9.26.

추석명절 위문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추석을 맞이하여 대전시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열매마을의 집)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열매마을의 집은 대전청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회에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 곳이다.

대전지방기상청장 등 4인은 시설을 방문해 쌀과 과일, 물티슈 등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작은 나눔이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9.27.

「충남권 기후변화 분석정보 사용자 매뉴얼」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우리 관할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충남권 기후변화분석정보 사용자 매뉴얼(2023)」을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절차 및 상세 검토사항, '24~'28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대상 지역별 기후변화 분석 정보 등을 담았다.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별 기후학적 특성이 반영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대된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3.10.10.

천안 직산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천안시 서북구청 내에서 관측 중이던 성거 AWS를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직산읍으로 이전하였다. 서북구청의 청사 증축, 관측장소 주변 수목 성장으로 인한 관측환경 개선과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강수량계와의 관측자료 중복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직산읍에 조성된 관측장소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천안시 강수량계와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11.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권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대전·세종·충남 기후 협의회」(이하 '기후협의회') 정책협의회를 10월 11일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추진하는 등 지역민의 기후변화 이해도 향상과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협의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지역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공동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23.10.11.

2023년도 관·학·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관련 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기상기술 공유로 기상업무를 선진화하고자 기상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공군기상단,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KAIST,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석하여 국지적인 특성이 반영된 위험기상분석과 시와 연계한 최신 기상기술 등 총 6개 과제를 발표하고 심도 깊게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기상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23.10.12. ~ 10.13.

「청소년 진로체험 나Be 한마당」 진로체험 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진로·진학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축제인 「제9회 청소년 나Be 한마당」에 ‘똥똥보 초코파이와 구름은 무슨 사이일까?’라는 주제로 참여하였다. 진공 압축 장치를 활용하여 실험을 통해 기압 변화를 알아보는 체험 부스는 대전·세종·충남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275명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기상청 직원들의 전공학과 및 진로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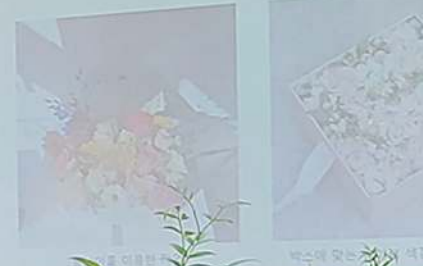
찾아오는 문화교실 3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10월 12일에 ‘찾아오는 문화교실 3차’를 운영하였다. 이번에는 꽃바구니와 미니 플라워 박스를 만들어보는 꽃꽂이 수업으로 진행하였는데,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꽃들이 준비되었다. 어떤 꽃을 어디에 배치할지 각자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가며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꽃을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과감하고 대범한 참여자들의 꽃꽂이 실력에 강사님이 감탄을 하였다. 1, 2차에 이어 3차도 직원들이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플라워 박스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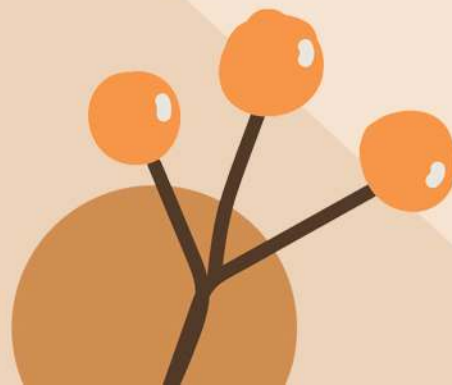


2023.10.16., 10.30.

계룡산 단풍 시작 및 절정 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계룡산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명산 단풍 지점으로 지정하여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계룡산 동학사 자연관찰로의 단풍나무 세 그루와 동학사에서 쌀개봉을 바라본 전경을 기준으로 단풍 시작과 절정을 관측한다. 올해 계룡산 단풍 시작은 10월 16일로 평년과 같고 작년보다 2일 빨랐으며, 단풍 절정은 10월 30일로 평년보다 3일 느리고 작년보다 1일 빠르게 관측되었다.

전국 유명산의 단풍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유명산 단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한발 어른신 재해 예방 협의회」 실무위원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재해 취약계층의 위험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내 복지관 간 협업으로 운영중인 「한발 어른신 재해 예방 협의회」 실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방재기간에 운영 한 위험기상 사전 문자서비스를 점검하고 겨울철 방재기간에도 더욱 실효성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앞으로도 복지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위험기상정보 제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3.10.2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가을음악회 및 홍보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10월 21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홍성군립관현악단을 비롯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댄스팀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갖고 먹거리, 즐길거리 및 ‘짱없는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서산버드랜드와 협업을 통해 ‘철새기행전’에서 찾아가는 기상과학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만들기 체험, 탄소중립 게임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추억을 남겨주었으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자단 현장탐방, 언론사 홍보를 실시하였다.



2023.10.27.

2023년 산림청 산불합동진화 시범훈련 참석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10월 27일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산불합동진화 시범 훈련에 참석하였다. 충북 음성군 가섭산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시범훈련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18개 기관과 3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산불 시나리오에 따라 기상관측차량은 산불 훈련 현장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산불기상정보를 제공하여 관계기관의 산불진화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23.11.1.

겨울철 관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관측기술 세미나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위험기상인 강설에 대비하여 관측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적설 관측 방법과 겨울철 실황 감시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적설 관측 오류와 대설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적설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신뢰도 높은 겨울철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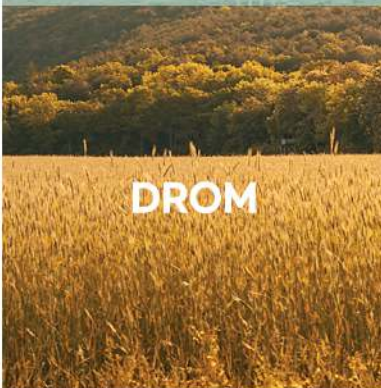
겨울철 아산만 국지 효과 예측자료 구축 및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겨울철 천안, 세종, 청주에 걸쳐 좁고 긴 지역에 특정 기상조건에서 대설이 발생하는 '아산만 국지 효과' 현상에 대한 예측 기술을 개발하였다. 10월 11일 '2023년 대전지방기상청 관·학·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에서 관계 기관에 개발 내용을 공유하였고, 11월 1일에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의 예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예측기술 운영을 통해 향후 겨울철 충남권북부내륙에 대한 국지예보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1.6.

대전 서구 정림동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옥상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여 11월 6일부터 관측을 시작하였다. 정림 AWS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강우감지, 강수량, 적설 총 7가지 기상요소를 관측하며, 이 자료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서구 정림동에 AWS를 설치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5개의 구에 기상관측 장비가 모두 설치되어 도심의 관측 공백을 해소하고 위험기상에 대응하여 신속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11.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소방 합동 훈련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에서 유사 시 빠른 대응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 합동 훈련을 11월 14일 실시하였다. 내포 119안전센터와 협조하여 내부전시장 화재를 모의하여 대피 훈련과 초기 대응 등 담당자 임무별 행동요령을 연습하고 소화기 사용을 연습했다. 센터는 관람객에서 안전한 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2023.11.16.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최종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관광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최종 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3차)를 대전청에서 개최하였다. ‘충남날씨관광’은 기상기후 정보와 관광유형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해시태그를 활용해 관광객의 유형에 맞는 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기존에 개발된 충남기상융합관광 서비스에 관광지를 추가하고, 기상융합지수, 해수욕장날씨, 체험관광 등 콘텐츠를 확대하였으며, 12월에 충남도청 관광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3년도 가을 계절관측

식물계절

은행나무

10.26. 단풍 시작 (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3일 늦음)

11. 4. 단풍 절정 (작년대비 6일 늦음, 평년대비 3일 늦음)

단풍나무

10.31. 단풍 시작 (작년대비 2일 늦음, 평년대비 6일 늦음)

11.15. 단풍 절정 (작년대비 5일 늦음, 평년대비 12일 늦음)

유명산 단풍(계룡산)

10.16. 단풍 시작 (작년대비 2일 빠름, 평년과 같음)

10.30. 단풍 절정 (작년대비 1일 빠름, 평년대비 3일 늦음)

기후계절

10.21. 첫 서리 (작년대비 2일 늦음, 평년대비 7일 빠름)

11.11. 첫 얼음 (작년대비 7일 늦음, 평년대비 8일 늦음)

11.17. 첫 눈 (작년대비 13일 빠름, 평년대비 3일 빠름)

11.17. 첫 관설 식장산 (작년대비 26일 빠름, 평년대비 20일 빠름)

9

2023
September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4. 부여 5위 27.3°C, 홍성 2위 26.3°C, 세종 2위 27.2°C

9. 5. 서산 3위 27.0°C, 홍성 1위 26.7°C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3. 보령 5위 32.2°C, 홍성 1위 31.7°C, 세종 3위 32.1°C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4. 보령 3위 24.7°C, 서산 4위 24.2°C, 부여 5위 23.9°C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9.20. 보령 2위 157.3mm, 대전 2위 152.7mm, 부여 3위 154.3mm
세종 1위 161.4mm, 홍성 2위 117.1mm

10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9.20. 보령 2위 18.2mm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9.17. 금산 4위 30.9mm

9.20. 보령 1위 70.1mm, 부여 2위 46.3mm, 대전 4위 38.8mm
세종 3위 33.0mm, 홍성 3위 30.1mm

10

2023
October

10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10.14. 천안 1위 13.2mm

10.19. 서산 2위 14.6mm

1시간 최다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10.19. 서산 2위 36.1mm

11

2023
November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11.1. 서산 4위 18.8℃, 부여 5위 18.5℃, 홍성 3위 19.7℃, 세종 5위 18.0℃

11.2. 서산 1위 19.4℃, 대전 2위 19.6℃, 보령 3위 19.9℃, 천안 4위 18.4℃

11.3. 서산 2위 19.3℃, 대전 4위 19.3℃, 보령 4위 19.8℃, 천안 5위 18.2℃

11.4. 부여 4위 18.7℃, 금산 4위 17.1℃, 대전 5위 18.8℃, 세종 4위 18.5℃

11.5. 보령 1위 20.6℃, 부여 1위 19.4℃, 천안 2위 19.0℃, 대전 3위 19.3℃
서산 3위 19.0℃. 금산 3위 17.9℃. 세종 2위 19.4℃. 홍성 4위 18.8℃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11.2. 금산 1위 26.7℃, 대전 1위 26.3℃, 천안 1위 25.8℃, 부여 2위 25.7℃

11.3. 천안 4위 24.1℃, 부여 5위 24.2℃, 세종 3위 24.3℃, 홍성 3위 23.1℃

11.5. 대전 2위 25.8℃, 부여 3위 25.3℃, 세종 2위 25.4℃, 홍성 2위 23.2℃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1. 서산 3위 17.0℃, 보령 5위 17.1℃, 홍성 3위 16.9℃, 세종 5위 12.7℃
- 11.2. 서산 1위 17.6℃, 보령 3위 18.0℃, 홍성 2위 17.6℃, 세종 4위 14.8℃
- 11.3. 보령 2위 18.2℃, 서산 2위 17.5℃, 홍성 1위 18.5℃, 세종 3위 14.8℃
- 11.4. 대전 1위 17.1℃, 부여 2위 16.0℃, 천안 3위 15.5℃
- 11.5. 부여 1위 16.2℃, 천안 2위 15.6℃, 대전 3위 16.4℃, 보령 4위 17.3℃
서산 4위 16.3℃, 세종 2위 16.4℃, 홍성 5위 15.1℃

일최대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1. 홍성 5위 7.5m/s
- 11.6. 보령 3위 12.1m/s, 홍성 1위 9.5m/s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 11.6. 천안 1위 17.8m/s, 부여 1위 17.4m/s, 보령 5위 17.8m/s, 금산 5위 16.0m/s
세종 1위 14.5m/s, 홍성 3위 15.7m/s

일강수량 극값(순위) 경신

- 11.5. 홍성 4위 41.5mm
- 11.6. 서산 3위 56.5mm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3. 11.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전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직산(617), 청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경림(378), 홍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